

“광주역 이전 송정역으로 통합해야” “백운광장 홈플러스 입점 막겠다”

철도시설공단 광산구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 설명회

“목포가 고속철 종착역…광주역 불필요”

오는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광주역에 송정역을 거쳐 목포로 연결됨에 따라 광주역의 이전 논란이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3일 광산구 청 회의실에서 광산구민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고속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계획 발표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광산 구민

들은 호남고속철도 예정 노선이 광주역이 아닌 송정역을 통해 목포로 연결되며 때문에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이전·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현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종착역이 목포 임성리역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KTX 종착역으로 돼 있는 광주역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광주역과 송정역, 목포(임성리)역까지 230.99km

길이에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공사로,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목포(352.29km)는 1시간 46분 만에, 서울~송정역(303.55km)은 1시간 33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호남고속 철도는 오는 2015년까지 오송~송정역 구간, 2017년까지는 송정역~목포(임성리) 구간의 공사가 완공된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9년 11월 까지 설계를 마친 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광주시 광산구 신룡동부터 연산동까지 광산구 지역 10개 동 16.8km를 통과하게 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mee@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이 남구 백운광장 홈플러스 입점 추진과 관련, 교통문제와 광주지역 유통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입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대형 유통업체 광주 진출과 관련, 불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자치구 순방차 남구를 방문한 박 시장은 이날 “홈플러스측이 입점하려는 백운광장 일대는 도시철도 2호선 예정 구간인 데다 향후 백운고가도로

박광태 시장 “김치종합센터 市서 막아 추진”

이에 따라 사업 주체를 놓고 남구청과 광주시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김치종합센터 건립은 탄력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김치종합센터와 관련, “추가 공사비 10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수십억원씩 발생하게 될 경영자가 더 문제”며 “건립문제를 마무리 짓고 경영도 정상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이날 구정보고에서 월산동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지원과 풍물유통 단지~포총사 도로개설, 다크적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등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50년 44%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데 비해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돼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과 유덕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거시경제, 재정 등 3개 부문 간 상호 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을 구축해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을 전망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광산구민 400여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주)일상 본사 여수로 이전

화양지구 해양·레저 타운 조성 사업 ‘탄력’

여수시에 특급호텔과 레저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주)일상이 최근 본사를 여수로 이전, 이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상은 오션 리조트 특구개발과 화양 경제자유구역 등 2012여수세계엑스포 유치에 필수 기반시설인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양 해양·레저 타운은 302만평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1조5천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복장형 몬도, 펜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본사 이전으로 개발사업과 물품구매에 지역 업체 참여 폭 확대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역 인재 우선 고용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일상 본사는

여수시 학동 시청앞 광장 로터리 5층 건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리모델링, 2층에 경영지원본부, 3층 건설본부, 4층 사업본부 등 3개 본부가 입주해 있다.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수중 소기업협의회, (사)여수경영인협회, 여수산단플랜트 건설업협의회, 전문건설여수시협의회 등 지역 상공인들은 ‘(주)일상의 본사 여수이전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성학 일상 관리본부장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있는 여수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사를 이전했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성우·여객기 조종사 등

한미 FTA후 유망 직종

컴퓨터 게임기획가, 성우, 여객기 조종사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둘 유망한 직업군으로 제시됐다.

취업 정보 전문가로 유명한 김준성씨(연세대)는 13일 출간된 ‘한미FTA후 직업의 미래’를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인력 수요 등 변화를 조망해 향후 유망한 10대 직업군을 제시했다.

우선 성우의 경우는 미국 드라마와 영화 수입 증가에 맞춰 수요가 늘고 컴퓨터 게임 기획가는 우리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로, 여객기 조종사는 여행객 증가로, 싱어송라이터는 지역 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라 각각 유망한 직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문화수도 광주서 애음악회 열린다

中·日 등 음악인 참여 화합·평화 합창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음악으로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음악회가 열린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20일 오후 7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합과 평화의 소리, 아시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유명 작곡가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위해 화합과 평화의 주제로 작곡한 곡을 공연하고, 영·호남 대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평화를 노래한다.

음악회에는 중국 상하이 음대 교수로 상하이 캠버오케이스터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야다순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음악학부 학

장 코지 토모타니, 홍콩 중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있는 웬 윙화 등이 무대에 오른다.

국내 음악가로는 이진우 한국작곡가협회 이사, 이만방 숙명여대 음악과 교수, 진규영 영남대 음악대학 학장, 이복남 폐지대 음악과 교수, 김선칠 광주자곡기협회 회장,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 등이 출연한다.

특히 영·호남 대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평화의 합창 공연이 있을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영남대와 호남신학대 음악과 학생 80여명이 함께하는 이 무대는 진규영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의 지휘로 음악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오는 15일부터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무료로 배부한다. 문의는 (062)230-0100.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1분기 성장률 亞 경쟁국중 꼴찌

한국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에 비해 4.0% 성장한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홍콩의 성장률은 5.6%였으며 싱가

포르는 6.1%에 달했다. 대국도 4.3%로 한국보다 높았으며 대만 역시 4.2%로 성장률에서 한국을 능가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1.1%, 9.1%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6.0%, 5.3%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별다른 외부 악재 없이 당초 전망했던 수

준에서 선방한 편이었으나 여타 경쟁국에 비해서는 뒤처진 셈이다.

작년 4분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4.0% 성장에 머물 데 비해 홍콩이 7.0%, 싱가포르 6.6%, 대국 4.2% 등으로 한국을 앞섰으며 대만이 4.0%로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로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하게 계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062)220-0524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 예금주:(주)광주일보

주주 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저희 회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점지 하오니 암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목 적 : 2007 회계연도 제40기 전년배당 수령주주 확정
2. 기준일 : 2007년 6월 30일
3.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7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07년 6월 14일

경부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이 구 택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영 강 경 원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

당회사는 2007년 5월 2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기로 하였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거나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당사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4일

주식회사 금영세라믹

대표정산인 오 인 속

연락처 062-361-1336

카드·결재·대납

★잔여 한도 대출

★카드 연체 대납

통화원전 228-3688

세계 심부름

★기정고민 ★어려운일 ★사람찾음

24시간 상담

등록업체 ☎ 228-0459

공시 최고

사 건 2007카공37

신청인 최복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2-10

이례 기재 증서의 소유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9.

17.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계류하면 권리가 상실하여 증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가계수표

· 번 호 : 자가9522674

· 금 액 : 금 5,000,000원

· 발 행 일 : 2007년 3월 14일

· 발 행 이 : 한영회사 한성가스상사

· 지급기일 : 2007년 5월 14일

· 지 금 지 : 해남군 해남읍

· 지급장소 : 해남군군부

· 최후소인 : 김기만

2007년 6월 14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 윤 정

남도대학 공고 제2007 ~ 10호

<h